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물관리 현장 설명회」 개최 지자체·주민과 함께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대비 강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 입력 : 2026년 04월 20일(월) 17:43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는 20일 용덕면 휴앤락복지센터에서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2026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도의원, 군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농업용수 관리와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공사 주요역할 및 가뭄대처를 위한 물 절약 홍보 ▲저수지 저수율 현황 및 영농급수 추진일정 설명 ▲수리시설감시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지역 현안사항 질의응답 및 당부사항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농업기반시설물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농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일선에서 재난 상황에 철저한 대비와 안전관리에 항상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수리시설감시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재경 의령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리시설감시원들이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령신문